

##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이 읽은 존낙스



낙스 안내자 | 권태경(총신대 역사교육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역사분과장)  
함께한 리더(READER) | 이지훈, 이지원, 남기정, 김고운, 조주영

**READER**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루터, 칼빈이 떠오르는데  
요. 그 두 사람과 낙스는 어떻게 달랐나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로 루터나 칼빈보다 조금 더 과격했죠.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적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활동 무대는 자유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였죠. 가톨릭을 비판하며 개혁을 일으킬 때, 국적이 다른 그에게 핍박보다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루터의 경우,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독일에서 시작되었기에 독일인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독일인들은 로마의 종교인 가톨릭이 왜 독일 교회의 문제에 관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낙스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린 여왕을 대신해 섭정하는 왕후가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 왕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프랑스 국교인 가톨릭을 적

극적으로 들여오게 되죠. 낙스는 스코틀랜드 청년으로 왜 이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죠. 그러던 중 자신이 존경하고 추종하던 개신교 지도자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가 종교적 이유로 산 채로 화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지요. 낙스는 개인적인 분노와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스코틀랜드가 정치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낙스는 루터와 칼빈과는 다르게 과격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보다 개혁적이고 현실적이며 과격한 성향을 보였죠.

또한, 루터와 칼빈이 신학자였다면, 낙스는 목회자이고 설교자였죠. 말씀에 근거하여 현실을 살아가는 목회자로 두 신학자들에 비해 현실 인식이 강했어요. 이는 앞서 말한 종교개혁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을 정말 좋아했어요. 실제로 닉스가 임종을 앞두고 힘없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 비서가 창문 밖에선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설교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닉스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설교자로서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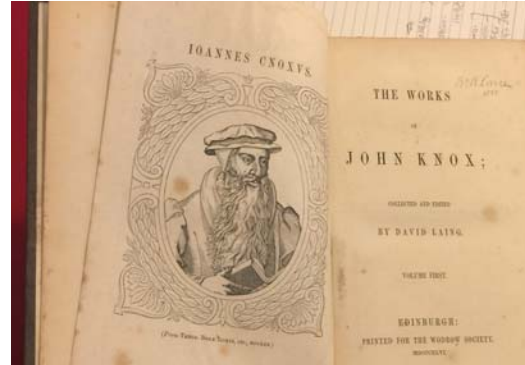
**READER** 현실에서 치열히 산 종교개혁자가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닉스는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대답이 루터나 칼빈과는 달랐어요. 세속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정치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에서 찾죠. 바울도 세속권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복종해야 한다고 했고, 루터와 칼빈도 그랬습니다.

닉스는 칼빈에게 ‘형편없는 지도자가 정치권력을 잡아도 복종해야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편지로 묻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는 말하지 못했죠. 그래서 닉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하죠. 이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입니다. 칼빈과 닉스는 둘 다 종교개혁자이지만, 정치적 입장에서는 일치하지 않았죠. 이런 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칼빈과 닉스의 입장 중 누구를 따를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READER** 닉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조금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섭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적,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오늘 하루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나요.’라고 물으면 답하지 못합니다. 닉스는 섭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 속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만한 삶의 내용을 가져야 한다 강조해요. 섭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섭리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READER** 닉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닉스의 장례식에서 그를 설명한 단 한 줄이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노라” 그의 용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에서 나온 용기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삶의 처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소명감은 있는데 용기가 없거나, 정의되지 않은 용기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종교개혁 당시, 중심에 있던 닉스, 루터, 칼빈등 개혁자들은 후대의 평가를 생각하며 행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용기와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의 움직임이 될 겁니다.